9/24/17

설교 제목: 완전한 사랑(아가서 8 장)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아가서 8: 1-14

(아 8:1)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 8:2)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아 8:3)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아 8:4)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 8:5)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아 8:6)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절관주]사 49:16, 렘 22:24

(아 8:7)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절관주] 잠 6:35

(아 8:8)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아 8:9)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아 8:10)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아 8:11)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절관주] 마 21:33

(아 8:12)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 8:13)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 8:14)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신랑 솔로몬 왕과 신부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아 8:1)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 8:2)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아 8:3)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7 장 10 절부터 계속해서 신부 술람미 여인은 신랑 솔로몬 왕에게 사랑의 고백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부는 신랑이 자신의 친오라버니였더라면 자신이 밖에서 신랑에게 입을 맞추어도 아무도 자신을 없신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오라버니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세상과 타협해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솔로몬 왕과 입을 맞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는 흔들림없이 하나님이 세워 주신 푯대만 바라보고 묵묵히 가야 합니다.

또 신부는 신랑을 자신의 어미 집으로 영접하여 들이고 그로부터 교훈을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어미 집은 영이 거듭난 집이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 세계로 들어가 거기서 에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마시게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이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면서 얻은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신부는 신랑이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자신을 안아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왼손은 위로와 평안을, 오른손은 능력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주의 사랑과 섭리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보호함을 받습니다.

(아 8:4)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신랑의 말입니다.
신랑은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 2 장에서 한 말을 다시 반복하는데 신부로 하여금 여인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도록 유혹하여 흔들어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 8:5)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본 귀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의지하며 고향으로 오는 것을 보면서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거친 들이란 험한 세상을 말합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거친 세상을 지나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신랑 솔로몬 왕이 "너로 말미암아 네 어미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육체적인 성적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거듭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어미, 너를 낳은 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한 교역자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성도는 거듭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발견하고 깨우치게 됩니다.

(아 8:6)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 8:7)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참 사랑을 맛본 술람미 여인은 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노래합니다.

신부 술람미 여인은 신랑 솔로몬 왕에게 자신을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고 부탁합니다.
도장은 당사자와 동격으로 모든 법적인 행사를 행하는 것이므로 대단히 소중하게 간직됩니다.
옛날에는 도장에 끈을 달아 팔에 걸고 다녔는데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팔에 두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십니다.

신부 술람미 여인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질투가 따릅니다.
사랑하는데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큰 만큼 당신도 우리에게 온전히 사랑받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돈 자식 권력 지위 등등의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품고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불같이 진노하십니다.
술람미 여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롬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롬 8: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세상의 환난이나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그분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우리도 죽기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죽을 수 밖에 없는 , 아니 죽어야 하는 운명이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부 술람미 여인은 신랑 솔로몬 왕과의 사랑은 자신의 전 재산, 아니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 8:8)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아 8:9)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신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처녀이었을 때에 오라비들이 한 말을 기억하였다가 말합니다.

작은 누이는 영적으로 심령이 어린 성도를 가리킵니다.

유방이 없다는 것은 영이 어린 것을 뜻합니다.

영이 어린 성도는 다른 사람에게 신령한 젖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도를 하거나 양육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는 영이 어린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 줄까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는 영이 어린 성도는 원수 마귀를 물리칠 힘이 없으니 은 망대를 세워 노략질을 당하지 못하도록 지켜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가 문일진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는 영이 어린 성도는 원수를 분별하지 못하므로 사이비나 이단 인본주의 신비주의 비진리 등등에 농락 당하기 쉽기 때문에 튼튼한 백향목 판자를 둘러 향기롭고 아름답고 덕이 되게 막아 줄 것이란 말입니다.
은 망대는 어린 양을 잘 보살펴 원수 마귀의 침략을 막아 주는 것을 말하고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는 것은 기도로 어린 영을 지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 8:10)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신부 술람미 여인은 그러나 자신은 이제 성숙해져 견고한 성벽이 되었고 유방은 망대 같이 커졌다고 말합니다.
견고한 성벽이 되었다는 것은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방이 망대 같이 된 것은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8:11)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아 8:12)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바알하몬은 술람미 여인의 고향인 수넴 지방 근처 솔로몬 왕의 포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바알하몬은 세상을, 포도원은 교회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교회를 세우고, 교역자를 두어 성도를 양육하고 지키게 하여 성도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은 천이란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 보다는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지키는 자들은 포도 열매를 얻는 대신에 은 천을 바쳐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 즉 교역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얻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는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는 자도 상급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는 신부 술람미 여인 자신은 그런 물질은 얻지 못하지만 솔로몬과의 사랑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백하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소유,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있다고 솔로몬 왕이 노년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에 고백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

(아 8:13)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 8:14)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제 부부가 서로 노래로 주고 받으면서 아가서를 마무리 합니다.

먼저 신랑 솔로몬 왕이 노래를 부릅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신부 술람미 여인은 신령한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합니다.
고향 친구들은 솔로몬 왕과 동거하는 신부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듣기 원해 모여 듭니다.
신랑 솔로몬 왕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결혼 생활은 행복한지 등등 말입니다
신랑 솔로몬 왕은 신부 술람미 여인이 자신과 어떻게 만나게 되었으며 어떻게 사랑을 꽃 피웠고 어떻게 결혼을 했으며 이제 둘이 함께 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신부된 것과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세상에 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의 입술을 통헤 그 말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신랑의 노래에 대해 신부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라고 합니다.
술람미는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이렇게 "빨리 달려 오라"는 식으로 재촉합니다.
향기로운 산들은 천성을 가르킵니다.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는 노루와 사슴같이 빨리 달려 오라는 말입니다.
참 성도는 이렇게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곧 오십니다.
슬기로운 다섯 쳐녀와 같이 기름을 잘 준비해 놓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